

# 북한의 농촌마을 계획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ural Village Planning in North Korea

김신원 \* · 허 준 \*\*

\* 경희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원

\*\* 경희대학교 도시공간디자인 연구실

Kim, Shin-Won \* · Heo, Jun \* \*

\* Design Research Institute of Kyung Hee University

\*\* Urban Space Design Studio, Kyung Hee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ural village planning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For conducting this study, the creation of rural villages in North Korea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eriods: from the Liberation of Korea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to the 1950's, 1960's, 1970's and 1980's. In this study, major rural villages were also examined and common characteristics of rural village-making in North Korea were analyzed.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 rural village planning,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and buildings, where revolutionary achievements of Kim, Il-Sung and Kim, Jung-Il were reached, are well preserved and actively created. ② Rural villages are intended to be a place for ideological education, productive activities and cultural refreshment. ③ In rural village-making, inclined planes are utilized, in consideration of climatic and topographic conditions. ④ The construction of residential areas with modern private house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the making of socialistic and communist rural communities in North Korea. ⑤ For economic reasons, existing villages, buildings and facilities are preserved and local building materials are broadly used.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sup>1)</sup>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경사로서, 남북한 평화구축 과정에 있어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의 실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평화공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번영의 조건인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한민족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각 전문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해당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현재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김 원(1994)이 사회주의의 도시계획 이념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주종원 등(1992)은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해, 김 원 등(1989)은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 구상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주종원 등(1993)은 북한의 주거지계획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창석(1993)은 남북한 도시정주체계를 비교하였으며, 김현수(1994)는 북한의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조경 분야에서는 김동찬 등(1995)이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동찬 등(1995)이 북한의 도시광장 및 거리 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김동찬 등(1996)은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형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김동찬 등(1996)은 남북한 주요 오픈스페이스의 비교 연구를, 김신원(1997)은 북한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촌 관련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북한의 농촌계획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북한의 농촌마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 관련연구로서 농어촌연구원(1993), 농어촌연구원(1994), 농촌생활연구소(1994), 농촌생활연구소(1996), 이상문(1995), 임승빈 등(1995a), 임승빈 등(1995b), 임승빈 등(1996), 조순재

(1996), 조순재 등(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8a),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8b) 등의 연구가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촌마을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북한의 지역 및 농촌에 관한 연구 가운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가 바로 농촌마을 계획에 관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농촌마을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sup>2)</sup> 또한 모든 농촌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마을 계획을 훌륭히 작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농촌마을 계획을 전망성있게 과학기술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농촌마을 계획은 마을을 농촌 주민들의 사상문화 교양과 생산활동 및 문화휴식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건설된 북한의 농촌마을은 남한의 농촌마을과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해방 후 북한의 농촌마을 계획에 관한 연구로서, 해방 이후 분단에 의한 단절로 인해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에서의 농촌마을 계획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장차 이 분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의 전개로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한국형 농촌마을 개발계획 및 체계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북한의 농촌마을 계획에 관한 본 연구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먼저 해방 이후 농촌마을 형성에 대해 시대별로 고찰하였다. 즉, 북한의 현대건축역사 시대구분<sup>3)</sup>을 기초로 하여 해방후—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1960년대, 1970—1980년대의 네 시기로 시대를 구분하고

1) 조선일보, 2000년 6월 14일자, 1면.

2) 김봉철, 김덕기, 홍문식, 류패윤, 강룡진, 김기홍(1991) 농촌부락계획,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

3) 김동찬, 김광래, 안봉원, 서주환, 김신원(1995a)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31 참조.

각 시대별로 농촌마을 형성과정, 시대별 특성, 대표적인 농촌마을 등을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북한의 농촌마을 가운데 특히 대내의 선전을 위해 자주 소개되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위치, 성격, 계획 방향, 공간구성, 도입시설 등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2단계까지의 연구결과와 관련문헌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농촌마을 계획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는데 첫째, 남북한의 각종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의 형태로 수행하였다. 북한 자료의 획득은 통일원 북한자료센터, 한국관광공사, 민족통일연구원, 대륙연구소, 북한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학술교류를 통하여 연구와 관련된 북한의 농촌계획, 조경 및 건축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희대학교 산업대학과 학술교류를 갖고 있는 중국 북경 임업대학 원림학원의 교수들을 통하여 북한의 자료를 획득하였다.

셋째,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 및 그들의 자문을 거쳐 이루어졌다. 문헌에만 의존하는 연구는 대외선전 및 홍보적인 성격이 강한 북한자료의 신빙성 문제 및 자료에 나타난 구체적인 공간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답사의 불가능성이라는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이 필요하였다.<sup>4)</sup>

## Ⅱ. 농촌마을 계획에 관한 시대별 고찰

### 1. 해방후—한국전쟁(1945. 8 — 1950. 6)

해방후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

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하에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sup>5)</sup>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토지개혁으로 불과 1개월 동안 100만정보 이상의 토지가 무상몰수되어 98만여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이는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 관계를 철폐하여 농업집단화의 터전을 만들며(국토통일원, 1973),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대륙연구소, 1990c).

토지개혁 이후 북한의 농촌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민주권기관, 민주선전실, 구락부, 도서실들이 마을 중심부에 들어서고 인민학교, 중학교들이 신축되었다. 또한 살림집의 신설 및 개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평안남도의 경우 1947년 6월 말까지 10,740호의 새 집이 건설되고 7,000여호의 농가가 개축되었다고 한다(리화선, 1993a). 특히 해방 5돌과 당창건 5돌을 계기로 농촌에서 구락부, 민주선전실 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는 바, 1950년 3월 29일자 「로동신문」에 의하면 1950년 3월 5일 현재 북한의 농촌에는 400개의 구락부와 18,200여개의 민주선전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 2.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북한은 휴전 직후에 개최된 북한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토의 결정하면서 농촌의 집단화 문제를 결정하였으며, 1955년부터 본격적인 집단화운동을 전개하였다(국토통일원, 1973). 짧은 기간에 농업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북한의 농촌마을은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에 부합되게 건설된 것이다.<sup>7)</sup> 농업협동화운동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957년 10월 30일 내각결정 제105호로 '농촌 및 읍들에서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되는 생산적 건설 및 주

4) 관련 전문가 가운데 특히 중국의 산동건축공정학원 건축계의 장건화 교수와 중국건축공정총공사의 용익 씨는 본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중국인으로서 북한에 정식으로 유학하여 북한의 건축과 조경을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5)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제1조에 의하면 "북조선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권은 경작하는 자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된다." (대륙연구소, 1990a: 273)라고 하여 발같이하는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을 내세웠다.

6) 리화선(1993a) 조선건축사 Ⅱ, 서울: 발인: 284에서 재인용.

7) 김일성은 '농업협동화에 대하여 라는 교시에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여야 합니다.···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반드시 토지혁명을 한 다음 그 성과를 공고히

택, 학교, 문화시설들의 건설사업을 보장할 제 대책에 관하여가 채택되어, 농촌과 읍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시범적으로 평안남도의 문덕읍, 숙천읍, 박비리 농업협동조합과 황해남도의 신천읍, 재령읍 새날 농업협동조합의 농촌마을 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국의 농촌중심부락에 대한 총계획도가 작성되었다.<sup>8)</sup>

1958년 말에 농업협동조합이 리단위로 통합되면서 1959년에 국가적으로 건설기술자들이 동원되어 3,700여개의 농업협동조합중심부락 총계획도가 작성되고, 이후 농촌부락계획에 입각하여 농촌부락건설이 이루어졌다(리화선, 1993a). 농촌마을들은 생산활동에 유리하게 용도별 지역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주민부락은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배치되었으며 생산활동에 유리하게 축산, 저장, 농산 등 지구들이 구분되어 건설되었다고 한다. 또한 농촌마을에는 학교, 탁아소, 유치원들이 세워지고 마을 중심부에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주선전실, 구락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 3. 1960년대

북한은 1964년 2월 26일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세 가지의 기본원칙 및 그 실현방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이를 점차적으로 없앨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sup>9)</sup> 농촌테제 이후 농촌기본건설과 농촌부락건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농촌부락건설은 전쟁의 피해가 컸던 군사분계선,

철도, 큰 도로, 해안연선과 평야지대 마을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산간지대 건설로 진행되었다. 마을의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생산조직단위와 봉사단위를 일치시키도록 했는데, 이것은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을 통일성있게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북한의 농촌에는 문화주택과 많은 공공건물들이 건설되었다고 한다(리화선, 1993b). 1961년부터 1965년까지 농촌에 문화주택을 비롯한 각종 교육, 문화, 보건, 편의 봉사 시설들이 건설되었으며, 농촌테제가 발표된 이후 1968년까지 창고, 축사를 비롯한 각종 생산시설들이 건설되었다. 또한 마을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각종 공공건물들이 건설되었는 바, 리소재지 부락에는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 구락부, 관리위원회사무실, 종합상점, 종합진료소가, 보조중심부락에는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 종합민주선전실, 분산점이 건설되었다. 농촌에는 인민학교, 중학교들도 건설되었다. 멀리 떨어진 주변부락에는 분교가 설치되었으며 산간지대에는 소규모의 학교와 분교들이 설치되었다.

### 4. 1970 — 1980년대

북한은 197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빠른 시일 안에 완전히 실현할 데 대하여 발표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짧은 시일 안에 없애으로써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앞당겨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대륙연구소, 1990a).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문화농촌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는 바, 리화선(1993b)에 의하면 1974년 한 해 동안 평양시 주변, 온천군, 태천군, 재령 나무

한데 기초하여 농촌경리를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1978: 21, 22)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위한 농업협동화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8) 1957년 10월 30일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105호에서는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농업상은 시범적으로 평안남도에서 문덕읍, 숙천읍, 박비리 농업협동조합과 황해남도에서 신천읍, 재령읍 새날 농업협동조합의 건설사업을 각각 직접 조직 지도하고 그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할 것과 각 도(평양시,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농촌부락건설총계획도가 작성된 농업협동조합을 매군에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시험 건설 사업을 군적으로 조직 진행하고 그의 경험을 농촌건설사업에 광범히 보급할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대륙연구소, 1990b: 354).

9) 1964년 2월 26일 발표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세 개의 기본원칙을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조건, 문화후생시설 기타 모든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더욱 더 축소시키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대륙연구소, 1990c: 60)라고 명시하여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마을 건설을 위한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다.

리벌을 비롯한 농촌에 10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또한 안악군 오국리, 문덕군 용림리와 동림리, 판문군 평화리 통일마을과 중심마을, 의주군 연하리, 은파군 옥현리 새은정마을, 만포시 고산리 등 전국에 걸쳐 농촌살림집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의 농촌마을들은 생산단위, 생활단위에 맞게 규모가 설정되었는데(리화선, 1993b), 예를 들어 심산지대에서는 분조를 단위로, 산간지대에서는 작업반을 단위로, 중간지대에서는 1~2개의 작업반을 단위로, 벌방지대에서는 2~3개 또는 3~4개의 작업반을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농촌마을들은 이전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특히 1970년대 이후 도시를 닮은 마을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어러리벌의 오국리, 열두삼천리벌의 용림리, 재령 나무리벌의 삼지강 부락 등이 대표적인 도시형 농촌마을이다. 도시형 농촌마을

의 건설로 북한에서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문화생활이 보장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 Ⅲ. 북한의 농촌마을 실례

<표 1>은 국내 및 북한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북한의 주요 농촌마을에 관한 표이다. 본 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농촌마을의 면모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집된 북한자료 가운데 이들 공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농촌마을 중 특히 대내외 선전을 위해 자주 소개되는 농촌마을(7개소)을 중심으로 성격, 계획방향, 공간구성, 도입시설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북한의 주요 농촌마을

항목 명칭	위치	성격	계획방향	주요 공간구성 및 도입시설	
거미대 마을	연안군 오현리	사회주의문화 농촌교양장소	오현 혁명사적지를 시각적으로 부각, 살 림집구획계획시 경사 지 최대한 이용	혁명사적구역	김일성만수무강탑,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김일성현지교시판, 김일성현지지도사적비, 적위대실 등
				살림집구획	편의봉사시설, 교육교양기관, 단층·2층· 3층살림집 등
대성협동 농장마을	평양시 교외	사회주의문화농촌 도시지구와 농촌지구의 경계점	대성산의 자연을 마을형성에 인입	공공건물지구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소광장, 리문화회 관, 리종합사무실 등
				살림집지구	단층·2층·3층살림집 등
				생산지구	
마전협동 농장마을	함흥시 홍남 구역	사회주의농촌마을	마을의 건축형성시 자연풍치 인입	공공건물지구	김일성영생탑,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소 공원, 김일성현지교시판, 김일성현지지도 사적비, 리종합사무실, 과학기술지식보급 실, 리문화회관, 종합편의시설, 탁아소, 유 치원 등
				살림집지구	2~3층살림집, 어린이놀이장, 창고, 집짐 승우리 등
새날협동 농장마을	신천군	사회주의 문화농촌 시범농촌마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적건물과 사적터 보존, 혁명전통교양	마을중심부	김일성만수무강축원탑, 김일성혁명사상연 구실, 김일성현지교시판, 문화편의봉사건 물, 휴식공원 등
				살림집구획	단층살림집, 2~3층살림집, 학교, 유치원, 탁아소, 밥공장 등
양지마을	신의주시 석하리	공산주의촌	마을중심부는 전반적 건 축구성에서 중심이 되는 지대 특히 큰 길에서 바 라볼 때 시각적 효과가 가장 좋은 지대에 선정	마을중심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교양마당, 김일성 현지교시판, 문화회관, 농장사무실, 종합편 의건물 등
				살림집구획	공동뜰 등

항 목 명 칭	위 치	성 격	계 획 방 향	주요 공간구성 및 도입시설	
육도리 마을	용강군 육도리	사회주의문화농촌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적건물 보존	마을중심부	상점, 편의봉사건물, 탁아소, 유치원, 문화회관, 김일성현지도사적비, 관리위원회 건물,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등
				살림집구획	다양한 놀이의 살림집 등
용이리 마을	평원군 용이리	리소재지마을, 사회주의문화농촌, 공산주의이상촌	자연풍치를 마을형성에 인입	마을중심부	김일성현지도교사관, 김일성 혁명사 상연구실, 관리위원회청사, 문화회관, 상점, 편의봉사건물, 출판물보급실, 소광장, 소공원, 탁아소, 유치원 등
				살림집구획	2층살림집, 소농기구창고, 집집승 우리 등
				농산작업장지구	농산물가공시설, 기계화반, 수리소, 보수반 등
용전리 마을	북청군 용전리	과수업의 본보기마을, 사회주의문화농촌, 공산주의이상촌, 사적지마을	과수의 고향으로서의 특징 반영, 김일성의 사적건물과 사적물 보존, 사적물 주변 공원화	사적관지구	리문화회관, 용전혁명사적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김일성현지도사적비, 과수재배경험자협의회장소 김일성만수무강축원탑, 광장 등
				공공건물지구	고등중학교, 체육관, 유치원, 리인민병원 등
				살림집지구	2층·3층살림집 등
				생산지구	·
				기계화지구	·
은상마을	삭주군 금부리	리소재지마을	기존의 살림화, 공공건물과의 조화, 부지를 최대한으로 절약, 마을의 전망효과 고려	사상문화교양 중심부	·
				공공문화 중심부	김일성현지도사적비,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교양마당 등
조중천선 택암협동 농장마을	순안 구역	현대적인 문화농촌마을	마을의 건축형성시 명확한 지역별 경계설정, 마을중심부 형성에서 건물의 크기를 지대적 조건에 맞게 조정, 마을 전반에 원림을 조성하고 자연을 최대한 이용	공공건물지구	농장사무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종합편의시설 등
				소총살림집지구	공동돼지우리, 닭우리 등
				단층살림집지구	김일성사적건물 등
				생산지구	농장수리기지, 작업반사무실, 봉사건물 등
하송마을	구장군 송호리	현대적인 농촌마을	관광도로에서 바라볼때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마을 형성	사상문화교양지구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교양마당, 문화회관, 농장사무실 등
				살림집지구	2~3층살림집, 집집승우리, 공동뜰 등
				생산지구	작업반선전실 등
하장마을	용천군 장산리	사적지마을, 공산주의이상촌	김일성의 사적건물 부각, 도로를 따라 살림집 집중 배치	사적지구	김일성사적건물, 교양마당 등
				살림집지구	2층살림집, 탁아소, 유치원 등
				작업반작업장지구	·

### 1. 거미대마을<sup>10)</sup>

연안군 오현리 거미대마을은 해주와 은빛 사이 철도의 중간역인 봉서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거미대마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업적 및 공산주의적 덕성을 전하며 당원 및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해 건설한 사회주의 문화농촌이다.

마을의 총계획은 철도연선과 도로에서 오현혁명사적지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을은 크게 혁명사적구역과 살림집구역으로 구분하여, 혁명사적구역을 마을의 중심부로 정하고 살림집구역을 그 양쪽에 나누어 배치하였다<그림 1>.

혁명사적구역 배치에서는 사적건물을 보존하고 사적지 참관을 위한 도로와 건물을 배치하였다. 사적구역의 중심부 전면에는 김일성 만수무강탑을 세우고 그 뒤로 사적건물과 사상문화교양건물을 배치하였다. 마을 중심부의 가장 높은 곳에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배치하고 이를 중심축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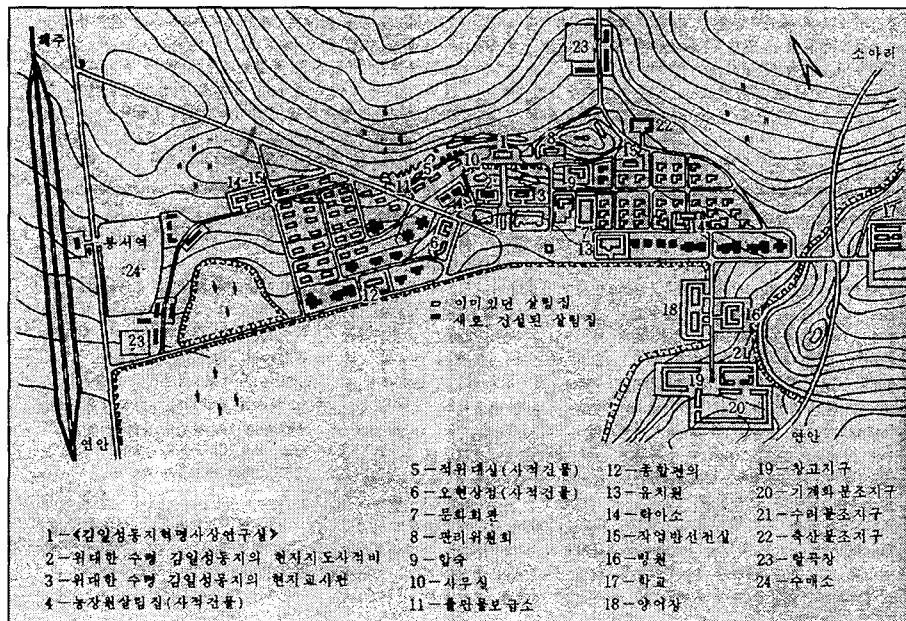
여 양쪽에 각각 김일성 현지교서관, 김일성 현지지도사적비를 배치하였다. 사적구역에는 또한 풍치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였다.

살림집구역 계획에서는 지형을 고려하여 도로를 만들고, 편의봉사시설, 교육교양기관, 생산시설 등을 배치하였다. 또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단층 살림집을 배치하고 마을의 전면부 평지에 2층, 3층 살림집을 배치하였다.

### 2. 새날협동농장마을<sup>11)</sup>

신천군 새날협동농장마을은 신천읍에서 동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280여호를 가진 시범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업적을 전하며 당원 및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해 건설한 사회주의 문화농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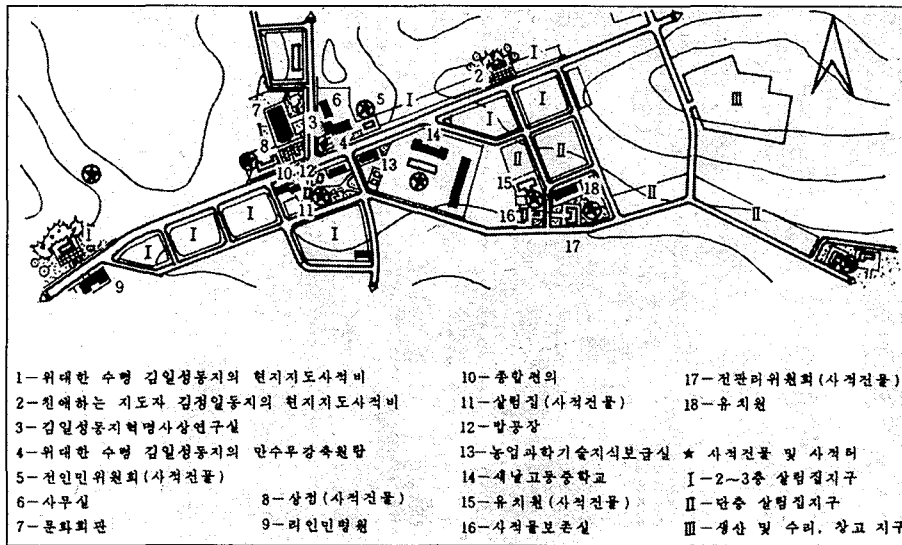
마을의 형성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다는 사적건물과 사적터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



<그림 1> 거미대마을 총계획도(출처 : 조선건축, 제16호 : 68)

10) 안병예(1991) 연안군 오현리 거미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6호 : 68-69.

11) 정광원, 김춘익(1992) 은혜로운 해발아래 천지개벽한 사회주의문화농촌 — 신천군 새날협동농장마을 건축형성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19호 : 65-67.



<그림 2> 새날협동농장마을 부락계획도 (출처 : 조선건축, 제19호 : 65)

다. 마을은 크게 마을중심부와 살림집구획으로 구분하고, 마을중심부를 사상교양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사적건물과 사적터들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 조건에서 기본간선도로 및 구획내도로를 사적건물 참관에 용이하게 계획하였다<그림 2>.

마을중심부의 기본간선도로 옆 3거리 부분에는 김일성 만수무강축원탑을 세우고, 그 뒤쪽에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배치하였다. 또한 도로를 축으로 만수무강축원탑 건너편에는 김일성 현지교시판을 세웠다. 마을중심부에는 이외에도 문화회관과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 등 문화편의봉사건물을 배치하고 사적건물인 상점을 잘 꾸며, 마을중심부가 사상교양 중심부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봉사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적건물과 문화회관 주변에는 소규모의 휴식공원도 조성하였다.

살림집구획 계획에서는 비교적 고지대에는 2~3층 살림집을, 저지대에는 단층살림집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경관이 형성되게 하였다. 살림집구획 내부에는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학교, 유치원, 탁아소, 밥공장을 배치하였다.

### 3. 양지마을<sup>12)</sup>

신의주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야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신의주 석하리 양지마을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공산주의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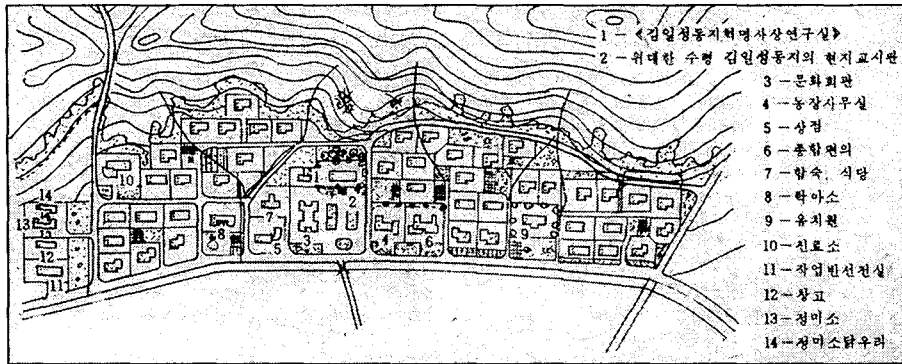
양지마을의 형성에서는 복잡하고 경사진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다. 마을은 크게 마을중심부와 살림집구획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마을중심부는 전반적인 건축구성에서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큰 길에서 바라볼 때 시각적 효과가 가장 좋은 지대에 선정하였다<그림 3>.

마을중심부 형성에서는 마을구성의 중심이 되는 곳에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배치하였다. 또한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중심으로 그 앞에 교양마당을 조성하고 김일성 현지교시판을 세웠다. 교양마당 양쪽으로는 문화회관과 상점, 농장사무실, 종합편의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농장원들의 사상문화교양과 휴식을 담당하게 하였다.

살림집구획 계획에서는 일조, 통풍 및 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지에는 전원형 2층 살림집을, 가로면 평지에는 2~3층 살림집을 배치하였다. 각각의 살림집군에는 공동뜰을 조성하여 농장원들의 휴식장소를 마련하였다.

12) 최익주(1995) 공산주의촌 석하리 양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32호: 49-52.





<그림 3> 양지마을 배치도(출처: 조선건축, 제32호: 50)

마을 뒷산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녹음이 우거지게 하였으며, 살림집과 공공건물 주변에는 마을의 풍치를 고려하여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식재하였다.

4. 용이리마을<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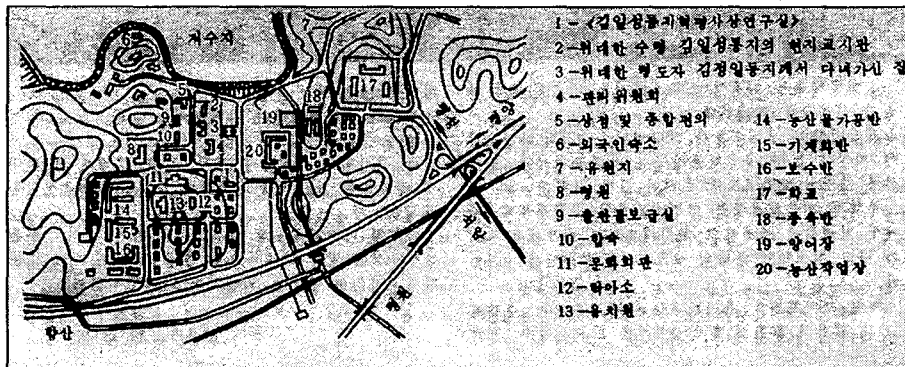
사회주의 문화농촌을 표방하고 있는 평안남도 평원군 용이리마을은 평원읍으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저수지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용이리마을 계획에서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야산의 자연풍치를 마을형성에 인입하였다. 마을은 크게 마을중심부, 살림집구획, 농산작업장지구로 구분하였다<그림 4>.

마을중심부는 김정일의 사적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정하고 여기에 김일성 현지교시판과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관리위원회청사, 문화회관, 상점, 편의봉사건물, 출판물보급실을 배치하였다. 특히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 앞에는 소광장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집회와 휴식의 장소를 마련하였다. 마을중심부에는 이러한 시설 이외에도 택아소, 유치원, 학교 등을 배치하였다.

살림집구획은 크게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림집을 배치하였다. 집 앞에는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소농기구창고와 집집승우리를 마련하였다.

농산작업장지구는 이용을 고려하여 지형상 낮은 곳에 배치하였다. 농산물가공시설과 기계화반, 수리소, 보수반은 농업경영을 고려하여 한 지역에 배치하였다.



<그림 4> 용이리마을 배치도(출처: 조선건축, 제34호: 46)

13) 한념(1996) 평원군 용이리소재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34호: 46-49.

### 5. 용전리마을<sup>14)</sup> . 15)

용전리마을은 과수업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열렸고, 과수의 고향으로 불리는 북청군 용전리에 과수업의 본보기 마을로 형성된 사회주의 문화농촌이다.

용전리마을 계획에서는 건축형성에 과수의 고향으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사적건물과 사적물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용전리마을은 사적관지구, 공공건물지구, 살림집지구, 생산지구, 기계화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그림 5>.

사적관지구는 마을의 형성에서 건축적으로는 형성중심으로, 정치적으로는 교양중심으로 계획하였다. 사적관지구에는 중심부의 지대가 높은 곳에 용전혁명사적관을 배치하였다. 사적관을 중심축으로 하여 앞에는 광장을 두고 광장 좌우에는 문화회관, 상점, 수증정각, 협의회장소 등 사적건물을 원상 그대로 배치하였으며 제일 앞 쪽에는 김일성 혁명

사상연구실과 만수무강축원탑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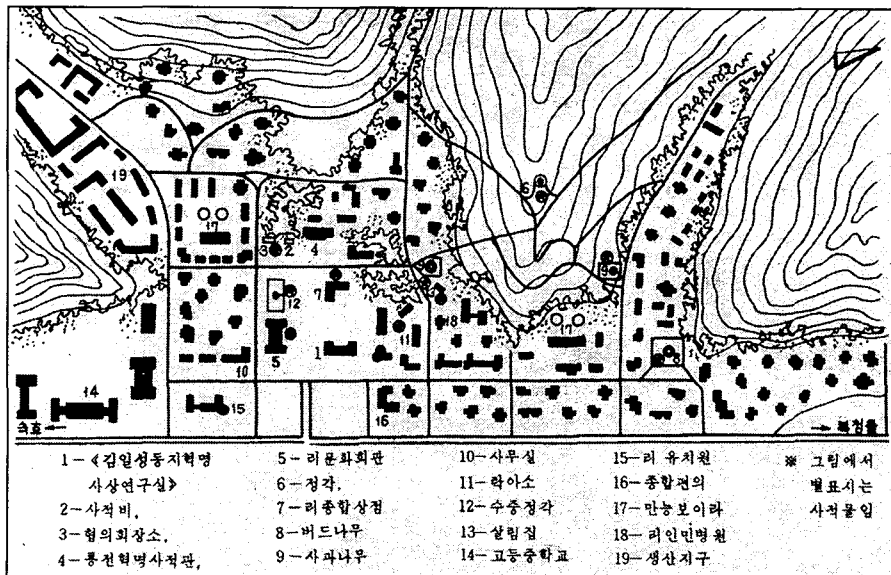
살림집지구에는 경치와 향좌를 고려하면서 2층 및 3층 살림집들을 계획하였다. 공공건물들은 주로 마을의 앞 쪽에 배치하면서 일부 건물들은 분산시켰다. 이러한 공공건물지구에는 고등중학교, 체육관, 유치원, 인민병원 등이 있다. 생산지구와 기계화지구는 대동골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마을의 원림계획에서는 과수의 고향으로서 그 특색을 살리기 위해 도로와 살림집 주변에 과일나무를 심었다. 또한 사적물 주변을 공원화하여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 및 교양 장소로 조성하였다.

### 6. 은상마을<sup>16)</sup>

평안북도 삭주군 금부리 은상마을은 읍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창성군과 삭주군을 연결하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마을의 세부계획에서는 이미 형성된 마을의 특성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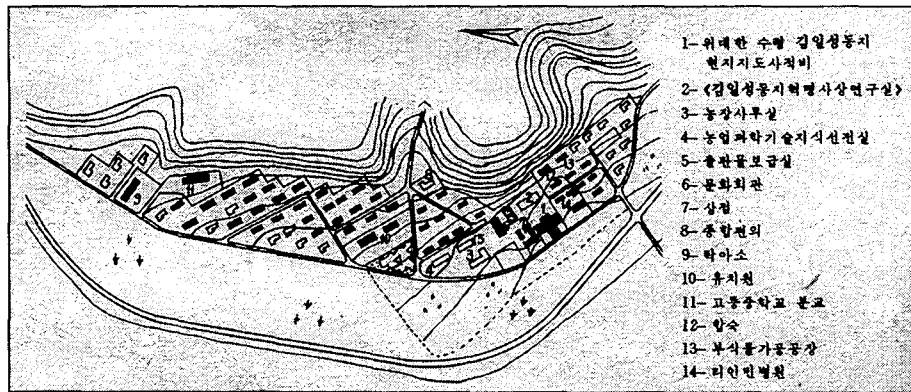


<그림 5> 용전리마을 총계획도(출처: 조선건축, 제19호: 43)

14) 김유전(1992) 그날의 영광속에 꽃피는 용전리, 조선건축, 제19호: 35-42.

15) 리식태, 방일선(1992) 력사의 땅 용전리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9호: 43-48.

16) 조선건축 기자(1990) 삭주군 금부리 은상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1호: 42.



<그림 6> 은상마을 세부계획도(출처: 조선건축, 제11호: 42)

하여 새롭게 배치하는 건물들이 기존의 살림집 및 공공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마을의 전망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을은 크게 사상문화교양중심부와 공공문화중심부로 이루어졌다.

김일성의 현지도사적비가 세워진 곳을 사상문화교양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이와 인접하여 전망이 좋은 곳에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를 배치하였다. 또한 교양마당 양쪽에 있는 사적건물인 출판물보급실, 상점, 인민병원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공공문화중심부에는 새롭게 농장사무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종합편의시설 건물을 배치하였다.

### 7. 하송마을<sup>17)</sup>

구장군 송호리 하송마을은 평양과 향산 사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개천군, 서쪽으로는 영변군과 인접하고 있다.

하송마을의 형성은 낮은 아산과 구릉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조건, 일조 및 기후 조건을 고려하면서 관광도로에서 바라볼 때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마을은 크게 사상문화교양지구, 살림집지구, 생산지구로 구분하였다.

마을의 중심부인 사상문화교양지구에는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앞에 교양마당을 배치하고, 교양마당 양쪽에는 문화회관과 농장사무실을 배치하였다. 또한 그 주변을 녹화하여 살림집지구와 구분함으로써 중심부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살림집지구에는 경사지에 2층 살림집을 계단식으로 배치하고, 가로면에는 2~3층 살림집을 그룹을 지어 배치하였다. 각각의 살림집 뒤에는 창고와 집짐승우리를 배치하는 한편, 2~3개의 분조 단위로 살림집구역을 구분하고 공동뜰을 조성하여 휴식장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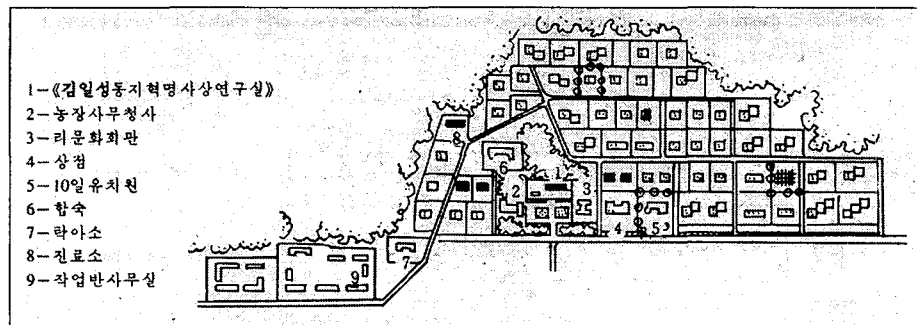
생산지구에는 살림집지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작업반선전실과 창고를 비롯한 생산건물들을 배치하였다.

###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의 농촌마을 형성과정을 북한의 현대건축역사 시대구분을 기초로 하여 해방후—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1960년대, 1970—1980년대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고찰하고, 대표적인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Ⅲ장까지의 연구결과와 관련문헌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분석한 북한의 농촌마을 계획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마을 계획에 있어서 마을 영역 안에 있는 김일성과

17) 김병희(1997) 새로 건설되는 송호리 하송마을, 조선건축, 제38호: 37-38.



<그림 7> 하송마을 계획도(출처: 조선건축, 제38호: 37)

김일성의 혁명역사 및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는 혁명 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 교양의 거점이라고 하는 김일성 혁명사적관과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보존하고 훌륭히 꾸밀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을의 중심부에 혁명사적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대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을 중심부에 배치되는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은 지형상 제일 높은 지대에 앞이 트인 곳에 형성중심이 되도록 배치한다.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 주변에는 사철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도록 원림계획을 한다.

2. 농촌마을 계획은 마을을 농촌 주민들의 사상문화 교양과 생산활동 및 문화휴식을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농촌으로 건설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중심부에는 혁명사적건물,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 김일성 현지지도교시판, 문화회관, 농장사무실, 여관, 상업 및 편의봉사 건물들을 배치하게 된다. 또한 농촌마을 원림계획을 통하여 마을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 농촌 주민들의 생산활동 및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3. 농촌마을 계획은 기후풍토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일성의 교시<sup>18)</sup>대로 농촌마을을 가능하면 논밭 가운데 건설하지 않고 양지바르고 사태가 나지 않을 남향 또는 동남향의 산기슭에 건설하여 농경지를 절약하는 것이다.

4. 농촌마을 계획에서 현대적인 살림집으로 이루어진 살림집구획의 형성은 농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농촌으로 건설하는데 있어 중요시하고 있다. 살림집구획 계획은 해당 지방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풍치에 어울리게 계획하고, 마을의 전반적인 건축형성에서 다양성과 입체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또한 살림집구획에는 공동뜰과 부속건물들을 배치하고 입지 조건에 맞게 텃밭과 정원을 조성한다.

5. 농촌마을 계획은 현존 마을과 건물 및 시설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방 자재를 널리 이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 도로, 상하수도, 체신, 원림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황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건설작업량을 줄이고 있다. 또한 지방 건재를 이용하여 건설비를 줄이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학술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북한의 농촌마을 계획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물은 관련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일에 대비한 지역 및 농촌개발, 효율적 공간활용방안 수립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통일에 대비한 지역 및 농촌계획 분야에서의 활발한 논의, 연구 및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공간활용방안, 남북한 통합 농촌마을 모델이 모색됨을 기대한다.

향후 보다 활발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북한의 지역

18) 김룡철, 김덕기, 홍돈식, 류패운, 강룡선, 김기홍(1991) 농촌부락계획,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4에서 재인용.

및 농촌계획, 농촌마을 형성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자료의 입수와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종국적으로 현지답사가 가능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參考文獻

1. 국토통일원(1973) 남북접촉에 따른 농어촌생활 개선방안, 국토통일원 보고서.
2. 권영태(1994a) 행복이 출렁이는 땅, 도시를 닮아가는 농촌 — 만경대협동농장 중심부락을 찾아서 —, 조선건축, 제26호: 4-7.
3. 권영태(1994b) 은덕속에 꽃핀 리상촌 — 문덕군 룡림리를 찾아서 —, 조선건축, 제27호: 6-10.
4. 김동찬, 김광래, 안봉원, 서주환, 김신원(1995a)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29-43.
5. 김동찬, 김광래, 안봉원, 서주환, 김신원(1995b) 북한의 도시광장 및 거리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0(6): 99-123.
6. 김동찬, 김광래, 안봉원, 서주환, 김신원(1996a)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4): 61-80.
7. 김동찬, 김광래, 안봉원, 서주환, 김신원(1996b) 남북한 주요 오픈스페이스 비교연구 —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1(5): 65-77.
8. 김룡철, 김덕기, 홍돈식, 류패윤, 강룡선, 김기홍(1991) 농촌부락계획,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9. 김병희(1997) 새로 건설되는 송호리 하송마을, 조선건축, 제38호: 37-38.
10. 김성일, 김호준(1996) 은혜로운 사랑속에 꽃피난 사회주의문화농촌 — 룡강군 옥도리마을 —, 조선건축, 제37호: 21-23.
11. 김신원(1996) 북한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의한 조정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김신원(1997) 북한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2): 101-112.
13. 김원(1994) 사회주의의 도시계획 이념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통권72호: 7-24.
14. 김원, 김의원, 여흥구, 김창석, 강위훈(1989)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통권54호: 13-53.
15. 김유진(1992) 그날의 영광속에 꽃피는 룡전리, 조선건축, 제19호: 35-42.
16. 김일성(1978)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7. 김창석(1993) 남북한 도시정주체계의 비교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통권68호: 5-24.
18. 김현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농어촌연구원(1993) 농어촌 마을종합개발 방안 연구 (1).
20. 농어촌연구원(1994) 농어촌 마을종합개발 방안 연구 (2).
21. 농촌생활연구소(1994)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제1차년도 계속보고서.
22. 농촌생활연구소(1996) 농촌주택과 마을의 주거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제3차년도 완결보고서.
23. 대륙연구소(1990a) 북한법령집 제2권, 서울: 273-299, 312-315, 323-332.
24. 대륙연구소(1990b) 북한법령집 제3권, 서울: 303-313, 351-359.
25. 대륙연구소(1990c) 북한법령집 제5권, 서울: 48-75.
26. 리경심(1991) 향도의 해발아래 천지개벽된 리상촌 — 순안농장 천동마을을 찾아서 —, 조선건축, 제14호: 4-8.
27. 리경심(1995) 풍요한 농촌, 공산주의리상향, 조선건축 제33호: 32-35.
28. 리식태, 방일선(1992) 력사의 땅 룡전리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9호: 43-48.
29. 리화선(1993a) 조선건축사Ⅱ, 서울: 발언.
30. 리화선(1993b) 조선건축사Ⅲ, 서울: 발언.
31. 서영수, 김진길(1997) 장산협동농장 하장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39호: 42.
32. 안병예(1991) 연안군 오현리 거미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6호: 68-69.

33. 이상문(1995) 농촌지역 공간계획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
34.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5a) 문화마을(집단마을)과 기존마을의 비교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1).
35.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5b) 취락구조개선(신촌형) 마을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2).
36.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1996) 농촌마을 계획·정비를 위한 농촌마을모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2).
37. 정광원, 김춘익(1992) 은혜로운 해발아래 천지개벽한 사회주의문화농촌 — 신천군 새날협동농장마을 건축형성에 대하여 —, 조선건축, 제19호: 65-67.
38. 조선건축 기자(1990) 삭주군 금부리 은상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1호: 42.
39. 조선건축 기자(1995) 아담하게 꾸려진 조중천선택암협동농장 중심부락, 조선건축, 제33호: 43-46.
40. 조선건축 기자(1996) 대성협동농장 중심부락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35호: 33-36.
41. 조순재(1996) 농촌마을 공동시설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 조순재, 임승빈, 오휘영(1996) 농촌마을 공동시설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2(2): 37-44.
43. 주중원, 김현수(1993) 북한의 주거지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통권69호: 17-31.
44. 주중원, 김현수, 유영욱(1992)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통권65호: 79-100.
45. 최익주(1995) 공산주의촌 석하리 양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32호: 46-49.
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8) 농촌마을의 공간구조(도시근교마을, 산간마을), M15-9.
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8) 농촌마을의 공간구조(평야마을, 준산간마을), M15-10.
48. 한념(1996) 평원군 룡이리소재지마을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34호: 46-49.
49. 한성호(1990) 농업협동화의 자랑스러운 고향 — 력사의 땅 원화마을을 찾아서 —, 조선건축, 제11호: 4-9.
50. 한재권(1996) 마전협동농장중심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34호: 43-45.